허영만의 '자전거 식객'

19 삼척~양양 〈상〉

19차 경로

집단가출팀 자전거 미각여행 계획

1 강화도 강화대교~초지대교
2 초지대교~전곡항
3 전곡항~당진
4 당진~서산
5 서산~안면도
6 안면도~태안
7 태안~보령
8 보령~군산
9 군산~변산
10 증도~해남
11 해남~보성
12 보성~사천
13 사천~울산
14 울산~포항
15 울릉도
16 제주도1
17 제주도2
18 포항~삼척
19 삼척~양양
20 양양~고성
21 고성~인제
22 인제~양구
23 양구~화천
24 화천~철원
25 철원~파주
26 파주~강화도

편집 | 양혜진 기자 yhj@donga.com 트위터@e_joyful

강릉 교동의 해물식당 주문진곰치국의 조진호 숙수가 끓여낸 삼숙이맑은탕을 맛보고있는 허영만 대장과 이진원 대원. 대파와 마늘을 넣고 끓인 뒤 마지막으로 굵은 고춧가루를 살짝 뿌려 깔끔한 맛을 이끌어냈다.

삼숙이탕! 국물이 깔끔해서 입이 호강…

난도질하는 칼바람에 발 감각은 떨어져 나가고
집에 두고 온 보온 덧신, 네가 사무치게 그립구나
아련한 추억 불러일으키는 해송숲 사이로 뻗은 철길
호젓한 한섬들목길은 나그네의 심금을 울리네

강릉 '주문진곰치국'의 '삼숙이 맑은탕'

넌더리가 날만큼 집요하고 맹렬한 추위였다. 바다와 접한 영동 지방은 약하긴 하지만 해양성 기후(marine climate)의 특징을 지녀 대륙성 기후(continental shelf)의 영향권에 있는 내륙보다는 덜 추운 것이 일반적이다.

교과서에는 해양성 기후가 온화하며 기온의 연교차와 일교차가 적고, 연중 온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집단가출 자전거전국일주 19번째 구간 출발점인 삼척 신남항은 바닷물이 얼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로 무자비한 한파가 휘몰아쳤다.

허영만 대장은 아까부터 "발가락에 감각이 없다"고 하소연이다. 재킷 속에 우모복을 껴입은 상체와 내복 한 겹을 추가로 더 입은 하체는 그런대로 견딜만했다.

그러나 양말에 자전거 신발뿐인 발은 추위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허대장 뿐 아니라 멤버 모두 발가락이 떨어질 것 같은 고통을 감내하며 달리고 있다. 자전거 전용 보온 덧신을 가져오지 않은 것이 천추의 한! 이런 상황에서 강한 북서풍은 설상가상 체감온도를 밑도 끝도 없이 끌어내렸다.

●무자비한 강추위에 언 몸, 삼척선 철도의 절경으로 달래다

장호항 계류장에는 강풍에 조업을 포기한 어선들이 그득하다. 꽁꽁 얼었던 몸은 근덕면 궁촌리와 부남리 사이의 가파른 고개들을 오르는 동안 겨우 풀렸다. 비로소 신발 속 발가락의 존재가 어렴풋이 느껴진다. 맹방, 하맹방을 지나고 삼척시가지를 벗어나 작은 후진 해변을 지나면 동해안의 해변도로는 표정이 살짝 바뀐다.

이런 길의 표정 변화를 주도하는 테마는 삼척선 철도. 삼척선은 동해역~삼척역 사이에 부설된 단선철도다. 1936년 동해선 건설과정에서 시멘트를 수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12.9km의 기찻길이다.

겨울바다와 그 옆을 지나는 철로…. 동해의 해안선을 따라 울창한 해송 숲 사이로 뻗어있는 철로 위를 철컥철컥 기차가 달리는 모습에는 아련한 추억을 일깨우는 그 무엇이 있어 집 떠난 자전거 나그네들의 감성을 한 없이 자극한다.

통일호가 달리던 삼척선은 승객이 줄어들자 1991년 여객칸을 없애고 화물전용으로 운영하다 2007년 동해역과 삼척역 사이에 추암역, 삼척해변역이 들어서며 강릉~삼척 간 관광용 바다열차로 재탄생했다.

주말을 맞아 겨울바다를 보러 온 가족들과 젊은 커플여행객들이 열차를 타고 가다 철로 옆으로 달리는 우리의 자전거행렬을 보고 손을 흔들어준다.

날씨는 말도 못하게 춥지만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두터워진 햇볕이었다. 바람막이가 있는 양지 바른 곳에서 다리쉼을 할 때면 등짝에 내리쬐는 볕이 따스하다.

철도는 해군 1함대가 있는 동해항에서 내륙 쪽으로 크게 방향을 틀었다가 감추해변부터 다시 해안으로 근접했고 우리의 자전거 코스도 철도를 따라 이어졌다. 삼척에서 묵호 구간은 대형 항만과 공단, 군사시설로 인해 지금까지 지나온 해안도로에 비하면 다소 살풍경이지만 한섬들목길 같은 명품 오솔길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

●"얼어죽고 싶어?" 한파경보 속 야영 준비하다 핀잔만

한섬들목길은 동해항을 빠져나와 천곡동 한섬해변에서 묵호 가세마을까지 약 2km 남짓한 짧은 구간. 하지만 아름다운 해송숲 사이로 난 호젓한 길이 심금을 울린다.

소나무의 우듬지를 스쳐가는 계절풍의 어쿠스틱한 음향과 나뭇가지를 뚫고 들어온 늦겨울 볕이 길 위에 어른어른 몽환적 그림자를 드리운 길을 자전거로 지나면 어떤 초현실의 터널을 통과하는 기분이 든다.

어달, 금진의 바닷바람에 식었던 몸이 정동진으로 가는 고갯마루에서 다시 데워져 등명, 안인진까지 쾌속으로 달리고 나니 짧은 겨울 해는 히말라야인 듯 눈을 하얗게 뒤집어쓴 대관령 뒤로 넘어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